

## 사사기 19-21장에 나타난 숨겨진 정치적 논쟁

정미혜(서울신대)

### 1. 서론

성경의 본문은 특정한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성경의 본문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본문이 형성된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만 한다. 사사기는 신명기 역사서에 속하며, 내용적으로는 여호수아의 죽음에서부터 왕정 수립까지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기 위해 애쓰지만 대부분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실패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불충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의 손에 억압당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인 사사를 세우신다. 비세습적인 사사는 야웨의 영을 받은 자로 군사적, 법적 지도력을 갖고 다스린다.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 안에 반복되거나 순환적으로 나타난다.

사사기는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1장 1절-2장 5절은 이스라

www.kci.go.kr

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 2장6절-16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사들의 다스림에 대한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패턴의 이야기들, 그리고 17-21장은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는 개별적인 이야기이다. 특히, 사사기 17-21장은 두 개의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17-18장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가 가정 산당을 설립했으나 단 지파가 그의 우상을 탈취한 이야기이다. 19-21장은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이 첩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서 유숙하다가 기브아 사람들에게 의해서 끔찍한 일을 겪는 이야기이다. 이 일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으로 발전한다.

이 두 일화가 사사기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사기의 내용이 군주제 이전을 다루고 있지만, 사사기가 단순히 군주제 이전의 이스라엘의 역사, 정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의 목적은 사사기 19-21장을 통하여 사사기 19-21장이 쓰여진 연대와 목적을 밝히고, 그 안에 숨겨진 정치적 이데올로기 논쟁을 연구하고자 한다. 사사기 19-21장은 반왕권적인 본문인가? 혹은 친왕권적인 본문인가?

본 연구는 정치학자인 제임스 스콧(James C. Scott)의 “숨겨진 기록”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다. 권력 관계가 계층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스콧은 「저항, 그리고 저항의 예술」에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대본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배계층은 지배계층의 공개 대본이 존재하고, 피지배계층에게는 피지배계층의 공개 대본이 존재한다. 그러나 스콧에 따르면, 모든 피지배자들은 자신을 지배하는 지배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 지배자들의 뒤에서 “숨겨진 기록”을 만들어 낸다.<sup>1</sup> 즉, 피지배계층은 자신들의 목소

---

1 James C. Scott,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s* (New Haven: Yale

리를 내기 위해서 정형화된 공개 대본안에 피지배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암시적인 내용을 담아 숨겨진 기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자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과 바벨론 포로지의 골라 공동체 두 개의 정치 세력이 나뉘게 되었다.<sup>2</sup> 사사기 19-21장은 유다 멸망 이후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포로지의 사람들과 유다 땅에 남아있던 두 정치 집단의 대립하는 이데올로기가 나타난다. 본 연구는 포로 공동체와 유다땅에 남아있던 두 정치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제임스 스콧의 “숨겨진 기록”에 대한 이론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결국 본문이 옹호하는 이상적인 왕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본문이 쓰여진 시대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통해 대립하는 정치 집단의 모습을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사기 19-21장에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정치 집단의 모습을 재구성 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모습도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사

사사기 19-21장이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왕정은 어느 왕정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사기에서 19-21장의 역할과 작성된 시기와 관련된다. 웹(Barry G. Webb)은 사사기 17-21장이 포로기에 사사기 전체의 결론으로서 본론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sup>3</sup> 수사학적 방법을 사용한 웹은 사사기 17:6; 18:1; 19:1; 21:25의

---

University Press, 1992), xii.

2 Carolyn Sharp, *Prophecy and Ideology in Jeremiah: Struggles for Authority in the Deutero-Jeremianic Prose*, 1st edition (London ; NY: T&T Clark, 2003), 27-39.

3 Barry G. Webb, *The book of the Judges: an integrated reading*,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라는 어구에 의해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sup>4</sup> 특히 웹은 마지막 장들에서 빈번하게 유다를 언급하여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주장한다.<sup>5</sup> 분명히 사사기 19-21장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여기서 유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웹은 유다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는다. 더구나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라는 어구는 확실히 이야기들 사이에서 “왕”을 언급하며 왕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왕권에 대한 언급 없이 17-21장의 통일성만을 강조하여 언급한다.

웹에 비해 좀 더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는 소긴(J. Alberto Soggin)은 19-21장에서 친 왕적 내러티브와 반 왕정 내러티브가 편집적으로 합쳐졌다고 분석했다. 소긴에 따르면, 20-21:24는 왕정 이전 시대의 베냐민과의 전쟁 설화와 지파의 생존자에게 아내를 마련해주는 이야기는 고대 설화들에서 유래한 것으로 반 왕정 이데올로기를 나타낸다.<sup>6</sup> 하지만, 친 왕정 이데올로기를 지닌 최종 편집자가 사사기 17-18장, 19장, 그리고 21:25를 사용하여 친 왕정적 이야기로 바꿨다고 주장한다.<sup>7</sup> 소긴은 사사기 19-21장 최종 편집한 이들이 DtrH라고 주장하면서, 사사기 19-21장의 정치적 목적이 요셉(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서 독립을 원하는 베냐민의 독립을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제시한다.<sup>8</sup> 소긴은 사사기 19-21장에 나타난 정치적 갈등을 왕정 초기시기

---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46 (Sheffield: JSOT Press, 1987), 197-203.

4 윗글, 182-183.

5 윗글, 197.

6 J. 알프레도 소긴, 「관관기」 한국신학연구소 학술부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421-425.

7 윗글, 421-425.

8 윗글, 421-425.

로 끌어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건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야기한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베냐민이 독립을 하려고 했던 시기가 언제인가? 또한 소건의 주장처럼 베냐민의 독립을 막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이유라면, 베냐민 지파를 전체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것이 정당한가? 또한 이러한 전승을 DtH가 사사기 마지막에 위치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이유에서 소건이 제시한 베냐민의 유다로부터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사사기 19-21장의 목적이라는 소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게일 이(Gale A. Yee)는 1995년에 “Ideological Criticism: Judges 17-21 and the Dismembered Body”에서 소건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정치적이데올로기를 연결시켜 연구했으며, 대립하는 갈등 구조를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을 고려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사기 17-21장은 무정부 상태가 왕의 부재 때문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 생산 방식에 의해서 가부장적 가정과 국가를 서로 대결하는 두 개의 집단으로 추론했다.<sup>9</sup> 특히, 사사기 17-21장이 요시야 왕 시대에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갈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 졌다고 보았다.<sup>10</sup> 무정부 상태를 왕의 부재로 보려는 이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인 가정을 강력한 부계, 친족 및 마을 기반의 사회학적 그룹이라고 주장한다.<sup>11</sup> 이의 주장대로 전통적인 가정과 국가가 정치적으로 대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설립 초기 시기로 그 시기를 한정하면 타당하다. 그러나 요시야의 시기는 국가가 이미 형성되어 정치적 기틀이 잡혀 있는 시기로 보이며, 관료들 사이에 정치적

9 Gale A. Yee, “Ideological Criticism: Judges 17-21 and the Dismembered Body,” in *Judges and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152-6

10 윗글, 154-5.

11 윗글, 153.

세력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2</sup>

요시아 왕은 제의 중앙화를 통해 그동안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지방 산당들을 폐쇄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을 전면으로 부각시키고, 세금, 공물 및 수수료 징수를 재편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일원화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그 동안 이런 수입을 거둬들이던 지역 지도자들인 지역 산당에서 일하던 레위 사람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특성을 볼 때, 이의 주장은 사독계 제사장들과 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레위 지도자들의 갈등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그녀는 사사기 19장에서 등장하는 레위인을 지역 산당에서 일하던 지도자로 국가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첩을 둘 정도의 능력을 지닌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sup>13</sup> 특히, 게일 이는 레위인이 에브라임에 돌아갈 때까지 첩은 살아있었으며,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전쟁은 레위인의 자신의 보복을 위한 사기극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평가한다.<sup>14</sup> 오히려 이의 연구는 북이스라엘의 레위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사독계 제사장들을 앞세운 남유다의 갈등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독계 제사장들과 레위계 제사장들의 갈등은 사사기 19장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20-21장에 나타난 베냐민 지파와의 갈등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의 주장처럼 19-21장을 요시아의 시기로 본다면 20-21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9-21장에서 대립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찾아내려는 그녀의 시도는 이후의

---

12 Jay Wilcoxon, "The Political Background of Jeremiah's Temple Sermon," in *Scripture in History and Theology*, Eds. A.L.Merrill and T.W. Overholt (Pickwick, 1977), 151-66; Christopher R. Seitz, *Theology In Conflict* (Berlin: De Gruyter, 1989), 7-102.

13 Gale A. Yee, 윗글, 161.

14 윗글, 163-65.

연구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자넷 톨링톤(Janet E. Tollington)은 이의 의견을 더 발전시킨다. 톨링톤은 사사기 19-21장이 사울과 다윗 사이의 패권 다툼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결과 다윗 왕조에서 북쪽 왕국의 카리스마적 이상과 대조되는 유다 왕조의 군주제를 지지하는 선전의 일부로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5</sup> 톨링톤은 사사기 19-21장에 나타난 이야기의 세부 사항이 요시아 개혁 시대에 유래했지만, 에필로그 전체 편집은 포로 이후 기간에 다윗 계열에 속한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 군주제 복원을 추구하는 공동체 사이에서 있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sup>16</sup> 그러나 다윗계 총독으로 인하여 군주제 복원에 대한 기대가 공동체 내부에 있었다라도 반사울 감정을 조장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본문은 분명히 사울과 다윗 사이의 숨겨진 논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이라 아미트(Yairah Amit)는 게일 이의 방법론을 받아들여 사사기 17-21장에서 정치적 갈등 세력을 구분하였다. 1999년에 출판된 “The Book of Judges: the Art of Ending”에서 아미트는 특히 사사기 17-18장이 진정한 사사기의 결론이며, 19-21장은 후대에 덧붙여진 부록이라고 주장한다.<sup>17</sup> 아미트에 따르면, 후대의 부록인 사사기 19-21장은 17-18장과 달리 무정부 상태를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sup>18</sup> 사사기 20장에서 기브아 사람들에게 해를 입은 레위인은 부족 연합이 자신이 당한 일에 대

15 Janet E. Tollington, “The Book of Judges: The Result of Post-Exilic Exegesis?,” in *Intertextuality in Ugarit and Israel*, ed. Johannes de Moor (Leiden ; Boston: Brill, 1998), 194.

16 윗글, 194-195.

17 Yairah Amit, *The Book of Judges: The Art of Editing* (Leiden ; Boston: Brill, 1999), 313-17.

18 윗글, 348-350.

해 보호하고, 복수해 줄 것을 기대하고 부족 연합에 자신이 당한 일을 항소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아미트는 사사시대에 법과 공공질서가 존재했으며, 이를 수호하기 위한 이스라엘 지파로 구성된 국군이 있었다고 주장한다.<sup>19</sup> 특히 그는 19-21장은 반 사울적, 친 다윗적 입장을 가지고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인 사울 왕조가 실패하고, 타인을 환대한 유다 베들레헴 사람 다윗의 등장을 희망하는 목적을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sup>20</sup>

이후 출판된 “Hidden Polemics in Biblical Narratives”에서 아미트는 사사기 19-21장의 저작 연대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 혹은 멸망 직후라고 주장하며 이 시기는 시드기야에 대한 반역과 다윗 가문에 대한 바벨론 제국의 정책으로 인해 베냐민 땅에 대한 기대가 살아난 시기로 숨겨진 논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었다고 추론한다.<sup>21</sup> 다윗세력과 사울세력이 공개적으로 적대시하는 통일왕국 시기에 사울 가문 후손들에 대한 비난이 익명으로 은폐되어 일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사기 19-21은 통일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 않으며, 모르드개로 대표되는 사울 가문에 대한 동정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제2성전 시대도 배경이 아니다.<sup>22</sup> 아미트가 제시한 이러한 의견은 일견 타당하다. 이 시기에 바벨론은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고, 다윗 왕가 출신이 아닌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임명했다. 그다랴는 베냐민 땅을 중심으로 남겨진 유다인들에게 경제 부흥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그다랴는 다윗 왕가의 방계 출신인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에 의해 암살당한다. 이것은 유다 왕국의 왕실 가문과 베냐민 땅의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한 대립 구

19 윗글, 337-340.

20 윗글, 349-350.

21 Yaira Amit, *Hidden Polemics in Biblical Narrative*, trans. Jonathan Chipman (Leiden ; Boston: Brill Academic Pub, 2000), 185.

22 윗글, 184-85.



도가 형성되었다고 이해될 수 있다. 다윗의 가계로 대표되는 유다 왕국의 왕실 인사들은 유다를 점령한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에 베냐민 땅의 지도부와 공개적인 논쟁을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숨겨진 논쟁을 이어간다. 그러므로 사사기 19-21장은 아미트가 제시한 예루살렘 멸망 직후로 저작 연대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희학은 “사사기 17-21장과 친왕권적 신학”에서 사사기의 표면적 목적은 사사시대 종교적 윤리적 부패와 무질서는 왕의 부재 때문이며, 왕의 등장을 간절히 바라는 친왕권적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한다.<sup>23</sup> 그러나 친 왕권적 이데올로기에서 지지하는 왕은 다윗 왕조는 아니고 야웨만을 섬기는 이상적인 왕을 의미한다.<sup>24</sup> 이희학은 사사기 17-21장은 후대의 특정 왕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상 1-7장과의 연결에서 읽어야 하며, 그 결과 사사기 17-21장의 친왕권적 이데올로기는 사무엘상에서의 왕조 성립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읽혀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5</sup> 사사기가 친왕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그의 편집적 분석은 매우 커다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사기의 주장이 나타나게 된 구체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

### 3. 사사기 19장

사사기 19-21장에는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인물들이 익명으로 등장한다. 19장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이 자기를

23 이희학, “사사기 17-21과 친왕권적 신학,” 『구약논단』 22 (2016), 254.

24 윗글, 258-259.

25 윗글, 274-275.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유다 베들레헬 출신의 첩을 데리러 떠난다. 하인과 함께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이스라엘 도시에서 밤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레위인 일행은 베냐민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서 유숙한다. 레위인 일행은 기브아에서 에브라임 출신 노인에게 환대를 받는다. 그러나 19:24절에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찾아와 동침할 목적으로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자 노인은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들이 듣지 않자 레위인은 직접 자기 첩을 붙잡아 문 밖으로 밀어낸다(25절). 첩은 동틀 때까지 강간당하고 문 앞에서 새벽까지 엎드려 있었다(26절). 결국 길을 떠나려던 레위인은 문지방에 엎드린 자신의 첩을 발견하고 나귀에 싣고 자기 집에 돌아가 첩의 시체를 열두 조각을 내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냄으로 자신이 당한 일을 알린다(28-29절).

## 1) 지명

사사기 19-21장에는 등장인물들은 익명으로 나타나지만, 지명은 실제 지명을 사용한다. 사사기는 사울과 관련된 지명을 사용하여 특별한 의도를 나타낸다. 이 지명들이 갖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지명은 19:1의 에브라임 산지이다. 본문에서 에브라임 산지는 19장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레위인의 출신 지역을 나타낸다. 중심인물인 레위인은 익명으로 나타나는데 사사기 19장은 에브라임<sup>26</sup> 산지의 레위인으로 소개한다.

---

26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서 요셉의 둘째 아들로 장자권을 받은 인물이며 에브라임 지파의 시조로 나타난다(창 48:17-20). 예언서에서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지정학적으로 에브라임의 위치가 북왕국의 실제 중심지였기 때문이다(사 7:2, 5, 8, 9, 17; 9:8, 20; 11:13, 렘 31:9, 18, 20; 겔 37:16, 19 참조). 에브라임이 북왕국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은 결국 북왕국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만난 노인 역시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며 기브아에 거주하는 자로서 베냐민 자손의 땅에 거하는 에브라임 출신으로 나타난다. 밀러와 헤이스는 베냐민이 원래는 에브라임의 일부로 생각되었으며, ‘요셉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가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7</sup>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가 연결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로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본문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베냐민 땅에 많이 살았던 시기를 생각하게 만든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베냐민 땅에 살던 시기는 첫 번째, 북왕국 멸망 이후 망명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왔던 히스기야 왕 이후의 시기와 예루살렘 멸망 이후 상대적으로 바벨론의 피해가 적었던 베냐민 땅을 중심으로 그다라에 의해 재건 사업이 벌어지던 시기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명은 유다 베들레헴이다.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 첩을 맞이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다. 여자는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자신의 아버지 집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떠난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데리러 유다 베들레헴까지 찾아 간다. 거기서 첩의 아버지에 의한 극진한 환대를 받는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출생지이며(삼상 16-17장),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장소(삼상 16:13)이다. 아미트는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이 첩의 아버지 집에서 받은 환대에 대해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타인을 환대하기로 유명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쓰여졌으며, 베들레헴 출신의 왕을 기대하게 만드는 의도적인 목적을 지닌다고 보았다.<sup>28</sup>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환대를 받았다고

27 J. 맥스웰 밀러, 존 H. 헤이스, 「고대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옮김), (경기: 크리스찬다 이제스트, 1996), 105. 원제는 J. Maxwell Miller and John H. Hayes,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28 Yairah Amit, *The Book of Judges: The Art of Editing*, 349-50.

해서 베들레헴이 특별히 타인을 환대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거나, 이를 근거로 베들레헴 출신 왕을 기대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아무 이유 없이 환대 받은 것이 아니라, 첩의 집에서 환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다윗을 생각나게 하는 지명이며 베들레헴이 사울을 생각나게 하는 지명과 함께 사용되어 독자로 하여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지명은 사사기 19:10의 여부스이다.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이 자신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첩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향할 때, 여부스 맞은편에서 해가 지게 되자 유숙할 곳을 찾는다. 10절은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고 현재의 지명을 알려준다. 레위인의 종은 여부스에서 유숙할 것을 권하지만(11절) 레위인은 여부스가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도시 기브아 혹은 라마에서 유숙하자고 말한다(13절). 여부스는 족속의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서 35회 사용되었고, 단지 6회만 지역 명으로 사용된다(수 15:8; 18:16; 18:28; 삿 19:10,11; 대상 11:4). 리드는 여부스와 예루살렘이 동일한 장소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통치하였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이전의 예루살렘의 옛 지역 명으로 언급된다고 보았다.<sup>29</sup> 그러나 버틀러는 여부스를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명을 언급함으로써 본문을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된 이후 시기로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sup>30</sup> 본문은 여부스와 예루살렘을 동일시한다. 이것은 분명히 본

29 Stephen A. Reed, “Jebus,” in *Anchor Bible Dictionary*, ed. David Noel Freedman, vol. 3 (New York: Doubleday, 1992), 653.

30 트렌트 버틀러 「사사기」 (조호진 옮김), (서울: 솔로몬, 2011), 952. 원제는 Trent C.

문의 연대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비록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사용만으로 본문의 연대를 확실히 유추하기 어렵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명이 널리 쓰인 다윗 이후의 시기로 가정 할 수 있게 해 주는 단서가 된다.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다윗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이다. 이 장소가 사울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들과 같이 쓰인 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레위인은 이방 성읍을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 보다 기브아를 선택한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독자들은 만약 레위인이 대안으로 선택했던 여부스, 즉 예루살렘으로 갔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며, 예루살렘이 베냐민 땅보다 더 나은 곳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사울의 베냐민 보다 다윗의 유다 즉, 예루살렘이 더 나을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장소는 라마이다. 레위인은 19:11에서 여부스에서 유숙하는 종의 의견을 무시하고 13절에서 기브아나 라마에서 유숙하기를 희망한다. 레위인은 여부스에서 머물자는 종의 조언을 따르기 보다는 이스라엘 지파의 땅에 속하는 두 장소인 기브아나 라마에서 유숙 할 것을 제안한다. 라마 역시 사울과 관련된 장소이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던 사울이 라마에 도착해서 사무엘에 의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장소가 라마이다(삼상 9-10장). 그러나 사사기 19장에서 라마는 실제 이야기의 무대가 되지 못하고 언급만 되는 도시이다. 라마가 언급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미트는 레위인이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졌으므로 기브아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라마를 언급함으로써 사울 시대의 지리적 공간을 끌어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1</sup> 분

---

Butler, *Judges*, WBC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8). 952.

31 Amit, *Hidden Polemics in Biblical Narrative*, 180.

명히 라마라는 지명이 언급됨으로 사사기의 이야기가 사울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섯 번째로 나타나는 장소는 베냐민 땅의 기브아이다. 기브아는 19장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도시이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본문에서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로 베냐민 땅에 있다(14절). 기브아는 사울의 출신 도시이다(삼상 10:26; 11:4). 기브아는 사울이 블레셋을 쫓아낸 후 본진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삼상 22:6; 23:19), 사울이 죽은 후 그의 후손들의 고향으로 남아있었다.<sup>32</sup> 아놀드에 따르면, 기브아는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란을 촉발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도시로 이 반란으로 영웅이 된 사울에 의해서 첫 번째 수도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위협적이고 상징적인 세력이었다.<sup>33</sup> 아놀드는 사사기 19-21장이 사울의 업적을 깎아내리기 위해 친다윗파에 의해 의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한다.<sup>34</sup> 확실히 기브아는 사울을 생각나게 하는 도시이다.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한 불량배들이 기브아 출신인 것은 독자들에게 기브아 사람들은 나쁘다는 인상을 준다. 심지어 기브아에서 유일하게 레위인을 환대하 나이든 노인은 기브아에 살고 있지만,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에게 기브아는 안 좋은 장소이자, 기브아의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들로 각인되게 만든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었던 기브아가 아니라 이방 자손들의 땅이었던 여부스 즉 예루살렘을 택하였다더라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것은 기브아의 사울과 예루살렘의 다윗이라는 대립

---

32 Patrick M. Arnold, "Gibeah," in *Anchor Bible Dictionary*, ed. David Noel Freedman, vol. 2 (New York: Doubleday, 1992), 1008.

33 Patrick M. Arnold, *Gibeah: The Search for a Biblical City* (Sheffield: JSOT Press, 1990), 87.

34 Arnold, "Gibeah," 1008.

구도를 만들고 반복적으로 기브아의 사울보다 예루살렘의 다윗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왔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 2) 사사기 19장 내용 분석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익명이다.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는 레위인이 행음함으로 자신을 떠난 첩을 데리러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종교적 업무를 담당하며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다. 땅을 상속 받을 수 없는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은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았다. 그러나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출신으로 등장한다. 즉, 레위라는 지파 보다 “에브라임 산지”가 더 강하게 인식되게 만든다. 이미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는 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명으로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은 북 이스라엘 출신임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은 첩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레위인은 농민이 지역 성소에서 제공하는 수입으로 부를 얻는 지역 지도자이며, 첩은 본 부인에게서 자녀를 둔 남자에게 성적 쾌락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정의한다.<sup>35</sup> 그렇다면 사사기 19장의 레위인은 첩을 둔 북이스라엘의 지역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 레위인은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첩을 둘 정도의 부를 이룩한 사람이다. 특히, 이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 신명기 사가가 강조하는 장소로,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을 미루어 이는 사사기 19장 본문이 요시아 시대에 쓰여졌다고 주장한다.<sup>36</sup> 이의 의견에 따르면 사사기 19장의 레위인은 요시아시기에 어느 정도 부를 거둔 북이스라엘 지역 성소의 지도자로 볼 수

---

35 Yee, 윗글, 161.

36 윗글, 161.

있다.

하지만, 과연 사사기 19장을 요시아의 시기로 볼 수 있는가? 요시아의 종교 개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사독계열 제사장들과 지방 성소들의 레위인들의 갈등이 생겼을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와 예루살렘의 비교를 통해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다윗과 기브아의 사울을 비교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세력은 예루살렘의 다윗과 기브아의 사울로 대표되는 세력이다. 이것은 사사기 19장의 비판의 대상이 기브아라는 것을 볼 때 더욱 명확하다.

사사기 19장의 레위인의 모습에서 사울에 대한 많은 암시를 찾을 수 있다. 아미트는 사사기 19장의 레위인에게서 사울의 암시를 찾고 있다. 사울이 사무엘상 11:7에서 암몬과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 소 한 거리를 잘라 이스라엘 전체에 보낸 것처럼, 사사기 19:29에서 레위인은 베나민과 전쟁하기 위해 첩의 시체를 잘라서 전체 이스라엘에게 돌렸다.<sup>37</sup> 뿐만 아니라, 레위인은 한 쌍의 나귀를 데리고 견고(삿 19:3, 10, 19, 21, 28) 사울은 그의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았고(삼상 9:3, 5, 20; 10:13,15), 사울의 종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것을 조언 해 준 것(삼상 9:6-8)처럼 레위인의 종이 여부스에서 유숙할 것을 조언했다(삿 19:11).<sup>38</sup> 마지막으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늙은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영접 한 것처럼 에브라임 산간 지방 출신의 노인이 레위인을 영접했다(삿 19:16).<sup>39</sup> 아미트의 의견처럼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의 모습은 의도적으로 사울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사사기 19장에서 보여지는 레위인과 기브아 주민들의 모습은

37 Amit, *Hidden Polemics in Biblical Narrative*, 181-182.

38 윗글, 182.

39 윗글, 182.



비윤리적이며 이기적이기까지 하다.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만난 불량배들은 레위인이 머물고 있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와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레위인을 요구 한다. 이러한 기브아 불량배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 심판 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것은 집주인인 노인의 대응을 볼 때 더 명확해 진다. 기브아 불량배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기 원했던 이는 분명히 레위인이었으나 노인은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 놓는다.<sup>40</sup> 그러나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자, 결국 레위인은 자신이 직접 자기 첩을 붙잡아 불량배들에게로 밀어냈다.<sup>41</sup> 레위인은 자신이 살고자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여인을 죽음으로 내어 모는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희생시킨 자신의 첩이 어떻게 되었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아침에 떠나기 위해 문을 나서는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삿 19:26). 레위인은 밤새도록 강간당하고 새벽녘에 풀려나 문지방에 엎드려진 자신의 첩을 발견하고 나귀에 싣고 자신의 길을 간다(삿 19:26-27). 이는 이에 대해 첩이 강간당해 문지방에 엎드려진 순간 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첩이 살아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sup>42</sup> 만약 이러한 이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레위인은 자신의 손으로 첩을 강간범들에게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첩을 살해한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기브아 불량배들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첩의 시체를 조각내어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뿌린다(삿 19:29).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집단으로 강간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행위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폭

40 양인철, 「사사기」 연세신학백주년 기념 성경주석,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250.

41 Phyllis Trible, *Texts of Terror Paper* (FORTRESS PRESS, 2009), 77; Yee, 윗글, 165.

42 Yee, 윗글, 165.

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와 동시에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여성을 자신의 손으로 손쉽게 희생시켜 버리는 레위인의 모습도 폭력적이긴 마찬가지이다. 사사기 19장은 기브아의 폭력배들의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첩을 희생시켜 살아남은 레위인에게서도 사울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의도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사기 19장은 다윗과 사울의 대립을 나타내며 사울을 깎아 내려 다윗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4. 사사기 20-21장

사사기 20-21장은 19장의 이야기와 연결된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 총회를 열었고, 레위인은 자신을 여인의 남편으로 소개한다(20:4). 그는 자신의 첩을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직접 넘겨주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불량배들이 첩을 욕보여 죽게 했다고만 증언한다(5절). 또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의 전쟁을 부추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인의 말을 듣고 기브아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7-11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불량배들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지만, 이 요청은 베냐민을 칠 준비를 마친 후에 이루어졌다. 베냐민 지파는 이 요구를 거부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지파들과 전쟁이 발발한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가 먼저 싸울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셔서 베냐민을 공격할 정당성을 부여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두 번의 전투에서 베냐민에게 패배한다(19-25절). 두 번째 전투 전에 유다는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는데, 이때 분위기

가 달라진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누가 먼저 베냐민을 칠지를 묻는 데 집중했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는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합당한지 묻는다. 또한 베냐민을 형제라고 부르며 적이 아닌 이스라엘 지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첫 번째 패배 이후 베냐민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생겼음을 나타낸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통해 응답하시고 난 후, 이스라엘은 계락을 써서 베냐민을 대패시킨다.

사사기 21장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 후 상황을 다룬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존속이 어려워졌다(21:1).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을 처벌하여, 남자와 그들과 함께한 여자들을 모두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400명만 살려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다. 이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연상시키며, 이스라엘 자손은 이 희생을 통해 베냐민 지파와의 평화를 이루고 그들의 존속을 도왔다. 뿐만 아니라,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로 부족한 베냐민 지파를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실로에서 열리는 야웨의 명절에 포도원에 숨어 있다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여자들을 붙잡아 아내로 삼으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이는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이었으며, 결국 사사기 21장은 베냐민 지파가 이방 여자들을 통해 존속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 1) 지명

사사기 20-21장에서 처음 거론되는 지명은 미스바이다. 사사기 20-21장의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전쟁을 할 때, 미스바는 이스라엘 군의 군사 집결지이자, 행정의 중심지로 나타난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회중이 일

제히 미스바에 모인다. 미스바 총회에서 레위인은 자신이 당한 일을 이스라엘 총회에 알리고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결의한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다른 자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한 곳도 미스바이며, 3절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곳도 미스바이다.

미스바는 왕정이전 시대부터 종교적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했다. 여호수아 18:26에서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에 할당 된 땅으로 나타난다. 특히, 미스바는 사무엘과 관계가 깊은 곳으로 사무엘이 벳엘과 길갈과 함께 순회를 했던 지역에 포함되며(삼상 7:12), 사람들을 모으고 기도와 금식을 시킨 곳이다(삼상 7:6-8). 이것을 통해 미스바에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스바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요새의 역할을 감당했다. 사무엘상 7:7-11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미스바에서 집결한다. 미스바는 사울과도 관련이 있는 장소이다. 사무엘상 10:17-21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만들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 미스바는 바벨론의 예후드 지역의 거점이 되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수십 년 동안 베냐민의 영토였던 미스바, 기브아, 기브온은 반란을 진압하는 동안에도 파괴되지 않았다.<sup>43</sup> 립슈츠에 따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는 동안 바벨론에 항복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상대적으로 파괴가 덜했던 미스바에 친바벨론 정부를 세워 시드기야의 정권에 반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sup>44</sup> 예루살렘 멸망이후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라는

43 Joseph Blenkinsopp, *David Remembered: Kingship and National Identity in Ancient Israel*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3), 30.

44 Oded Lipschits, *The Fall and Rise of Jerusalem: Judah under Babylonian Rule* (Winona Lake,

미스바를 새로운 행정 중심지로 삼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까지 행정 중심지로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등장하는 도시는 야베스 길르앗이다. 사사기 2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하여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될 것을 후회한다. 미스바 총회에서 베냐민과의 전쟁에 나서지 않았던 지파를 죽이고자 맹세했었던 이스라엘 회중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을 희생시키기로 결의한다(21:8-10). 결국 이스라엘 회중은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진멸하고,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 사백 명을 붙잡아 베냐민 자손에게 보낸다(11-12절).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위해 야베스 길르앗이 희생되었다.

야베스 길르앗은 사울의 초기 통치와 관련 있는 도시이다. 특히 사울의 초기 군사력을 확증 받은 것이 바로 사무엘상 11장에서의 야베스 길르앗의 사건이다.<sup>45</sup>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길르앗을 치자, 야베스 길르앗이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사울이 야베스 길르앗을 구한 이후로 야베스 길르앗은 사울에게 충성했으며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에게 충성하여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sup>46</sup> 사무엘상 31장 11-13절에서는 사울이 전사하자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 자신들의 땅에 장사 지냈다. 야베스 길르앗은 사울과 깊게 관련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생각나게 하는 도시이다.

본문에서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베스 길르앗에 대해 보복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조치는 야베스 길르앗에

---

IN: Eisenbrauns, 2005), 76-77.

45 Diana Edelman, "Jabesh-Gilead," in *Anchor Bible Dictionary*, vol. 3 (New York: Doubleday, 1992), 594.

46 Yaira Amit, *Hidden Polemics in Biblical Narrative*, 179-80.

게 과하게 느껴진다. 이것은 단순히 야베스 길르앗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사울과 관련된 도시이기 때문인가? 심지어 사사기 21장에서 야베스 길르앗은 사울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위해서 희생된다. 야베스 길르앗의 운명은 사울의 세력의 운명과 동일시된다. 사울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몰락처럼, 사울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야베스 길르앗 역시 희생된다. 야베스 길르앗이 이스라엘 회중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진멸된 것처럼 사울의 세력 역시 진멸되어야 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도망갔다 되돌아 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전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멸절 당한 지파의 후손들의 결합한 결과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 2) 사사기 20-21장 내용 분석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잔인하게 도륙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환했다. 이에 대해 사사기 20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였다. 웹은 이 “총회”라는 용어가 왕조 이전 시대의 회중 모임을 표현하는 용어라고 주장한다.<sup>47</sup> 그러나 이 모임에서 레위인은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항변하며,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의견을 내고 보복을 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러므로 총회 모임이 합법적인 의결기구일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사기 20장4-5절에 나타난 레위인의 항변은 자기중심적이다. 비록 진실은 레위인에게 명예로울 것이 없지만, 레위인의 이야기는 명예

47 Barry G. Webb, *The book of the Judges*, 262.

롭게 뒤바뀐다.<sup>48</sup> 먼저 레위인은 여인의 남편으로 소개된다. 사사기 19장에서 여인의 호칭이 “첩”이었으나, 20:4에서 레위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부분에서만 “여인”으로 호칭이 바뀐다. 이것은 레위인의 지위 역시 합법적인 남편으로 보여지게 만들며 레위인이 당한 일이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한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치러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 했으며, 자신의 첩을 옥보여 죽였다고 진술한다(20:5). 실질적으로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레위인을 죽이기 위해 그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와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었으나 레위인의 고발에서 기브아 사람들의 목적은 그를 죽이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목적이었던 동성을 강간하는 행위는 남성 사회에서 죽음보다 더 모욕적으로 보여질 수 있었다.<sup>49</sup> 이에 대해, 임효명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에게 한 행동은 동성애적 욕구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레위인을 여성화하여 모욕을 주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한다.<sup>50</sup>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레위인을 향한 동성애적인 욕구가 있었든 없었든, 이 상황이 레위인에게 모욕적인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레위인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자신의 첩을 옥보여 죽게 만들었다고 진술하지만 실질적으로 첩을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밀어 넣은 사람은 바로 레위인 자신이다(19:25). 레위인은 총회에서 자신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감추고 기브아 불량배들의 악행을 강조하고 자신이 당한 일이 비극적인 일이었음을 부각시킨다. 결국 사사기 20-21장 안에서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한 종족의 멸절과 학살을

48 Gale A. Yee, “Ideological Criticism: Judges 17-21 and the Dismembered Body,” 166.

49 윗글, 166.

50 임효명, “성폭력 조력자들 연구: 사사기 21장, 사무엘하 13장, 16장 20-23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3 (2022), 194.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다.<sup>51</sup> 레위인은 고발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깎아 내리지 않기 위해 사실을 교묘하게 뒤바꾸며, 자신의 첩의 죽음을 이용하여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향한 개인적 복수의 욕망을 채운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모아 열린 총회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이 된 그다라가 미스바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은 장면을 상기시킨다(렘 40:9-10). 예루살렘 멸망 직후,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이 된 그다라는 파괴가 덜했던 베냐민의 미스바를 중심으로 흩어진 유다의 백성들을 모아 유다를 통치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도망가서 살아남아 흩어진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렘 40:6). 그다라는 미스바에서 도망가서 살아남아 돌아온 백성들 앞에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연설한다(렘 40:9). 그다라는 베냐민 땅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모았다. 그다라 아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20장의 도망가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를 연상시킨다. 사사기 20장의 레위인에 의한 총회는 이 미스바에서의 그다라의 모임을 상기시킨다. 뿐만 아니라, 결국 사사기 19장의 부도덕한 기브아 주민들과 20장의 도망가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는 그다라의 통치하에 유다 땅에 남겨져 베냐민 땅에 모인 유다의 남겨진 사람들을 나타내며,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레위인은 그다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사사기 19-21장의 숨겨진 논쟁은 19장의 기브아 주민이나 20장의 비굴한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 베냐민 땅의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며, 사사기 19-20장의 비윤리적인 레위인의 모습은 그다라의 모습도 비윤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든다.

---

51 J. Cheryl Exum, 「산산이 부서진 여성들: 페미니즘 비평으로 본 성서의 여성들」(김상래 외 역), (서울: 한울출판사, 2001), 237. 원제는 J. Cheryl Exum, *Fragmented Women: Feminis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 1993).



벧엘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전쟁을 할 것인지를 질문한다(삿 20:18).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20:18)”라는 질문에 야웨의 대답은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로 응답하신다(20:18). 이 장면은 가나안 정복을 생각나게 한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 정복 당시 가나안 지파에 해당한다. 공격의 대상인 베냐민을 치는 지파는 유다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를 전면에 내세우게 만든다. 즉, 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역시, 숨겨진 논쟁으로 유다가 베냐민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사기 21장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내전 그 이후의 결과를 이야기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남은 자들이 아내를 얻지 못함으로 한 지파가 멸절되어 가는 것을 후회한다. 사사기 21:8-14절에서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멸망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진멸시키고(삿 21:11) 오직 처녀들만을 데리고 와 베냐민과 결혼시킨다. 이것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 당시의 성전을 연상시킨다. 비록 처녀를 살려 베냐민과 결혼시키지만, 야베스 길르앗은 단지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가로 진멸되어야 했다.

그렇다면 왜 야베스 길르앗인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베스 길르앗은 정치적으로 친 사울적인 도시였다. 소긴은 베냐민과 야베스가 우호 협력 관계에 있었다고 언급한다.<sup>52</sup> 이스라엘은 표면적인 이유들에

52 소긴, 윗글, 394.

서 기브아의 불량배들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고 난 후,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을 처녀를 남기고 모두 멸절 시켰다.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이던지 이것은 이스라엘이 친사울적 도시들을 상대로 전투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이 야베스 길르앗과 치루는 전투의 형태가 가나안 정복 당시 거룩한 전쟁을 상기시키는 것은 친사울적 도시들이 가나안 정복 당시의 가나안과 비교되어지며 거룩한 전쟁으로 살육당해야 한다고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 함께 했던 야베스 길르앗이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위해서 희생되어지는 것은 결국 베냐민 지파와 함께 하는 세력들이 야베스 길르앗과 동일한 운명을 갖게 될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즉, 사사기 19-21장은 사울로 대표되어지는 베냐민 지파의 이미지를 깎아 내리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결과이다.

이스라엘이 야베스 길르앗의 여인들을 잡아다 강제로 베냐민 지파의 남자와 결혼시켰으나, 인원수가 부족했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도망가서 살아남은 베냐민 남자의 숫자는 육백명이다(20:47). 하지만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시키고 데려온 여자들은 사백명으로 여전히 여자들의 숫자가 부족하다(21:14). 결국 베냐민 지파의 존속은 야베스 길르앗의 희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다.

이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이 제시된다. 여호와와 명절에 춤을 추러 나오는 실로의 여자들을 보쌌해서 베냐민의 남은 자들과 결혼시키는 것이다(21:21). 정상적이지 않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여성을 얻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정당성에 영향을 받는다. 베냐민의 남은 자들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올 때 납치해서 데려가도록 종용받는다. 블락은 포도원은 환락과 음악과 춤으로 특징지어지는 포도 수확의 기간에 벌어지는 가나안 다산 제의를 상기

시키며 실로의 춤추는 여자들 역시 실로에서 행해진 가나안 제의와 관련된 전문 무용수를 상기시킨다고 주장한다.<sup>53</sup> 사사기 21장 12절은 실로가 가나안 땅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실로에서 행해진 의식이 이방 제의 의식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사기 21:19은 “실로에 매년 여호와와 명절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방 땅 실로에서 왜 여호와와 명절이 행해졌는가? 사사기 21장은 실로가 이방 땅으로 결국 아베스 길르앗에서 데려온 여인만으로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키기 부족하자 이방 여인들까지 데려와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유지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이방 여인들 특히 이방제의에 참석한 여인들을 보쌈으로 데려다 베냐민 지파의 아내를 삼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계속 해서 이스라엘에 속하는가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이미지를 깎아 내리기 위함이지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서 몰아내기 위함은 아닌 것이다.

결국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 아베스 길르앗의 주민들이 멸망을 경험해야 했고, 실로의 여자들은 보쌈을 당해야 했다. 더 나아가 보쌈을 당해서 베냐민 지파 후손들의 엄마가 되는 여자들의 정당성 역시 모호하다. 이것은 앞으로 태어날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아이들의 부모는 기브라의 불량배가 속했던 지파로 이들 불량배를 살리기 위해 정당성 없는 전쟁을 하다 전체 이스라엘에서 쫓겨 도망갔다 돌아온 아버지와 그들을 살리기 위해 멸절당한 아베스 길르앗 출신의 어머니 혹은 이방 땅 실로에서 행해진 제의에 참석했던 어머니를 둔 아이들이라는 것이다. 즉, 이러한 사사기의 이야기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성전으

---

53 Daniel I. Block, *Nac Vol 06 Judges & Ruth*, (Nashville, Tenn: Holman Reference, 1999), 581.

로 꺾어야 할 정도로 약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제의와 관련된 여성들을 납치하여 태어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정당성을 갖지도 못했다는 인식을 만든다. 즉,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사사기 19-21장은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이방 여인들을 취한 베냐민 지파와 정당성을 확보한 유다 지파 사이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

## 5. “그 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기 19-21장은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사울과 유다 지파의 다윗의 대결 구조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깎아내리고 다윗을 높이려는 의도를 지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문이 과연 실제로 사울과 다윗 시대에 작성이 되었을까? 다윗의 통치 시기 다윗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정치적 정당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프로파간다를 사용하였다.

이미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사사기 19-21장을 통해서 살펴 볼 때, 이 글이 쓰여진 실질적인 시기는 유다의 베냐민에 대한 적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시기이다. 사사기 19장만을 놓고 볼 때, 사울과 다윗 개인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20-21장으로 확대 할 때, 사사기 갈등의 대상은 베냐민 지파 전체와 더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와 함께한 아베스 길르앗까지 그 적대감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울과 다윗 개인의 정치 이데올로기 전쟁이 아니라, 정치 그룹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신명기 역사서의 편집본에 대해서 연구한 토마스 C. 뢰머(Thomas C. Römer)는 신명기 역사서가 요시야 시기에 1차 편집이 있었으며, 포로기

신바벨론 시대에 2차 편집이 있었고, 페르시아 시대에 3차 편집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54</sup> 이에 대해 아미트는 사사기 19-21장이 요시아 시기 기록된 17-18장과는 달리, 바벨론이 아닌 유다에서 귀환 공동체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sup>55</sup>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펴 본 것과 같이 사사기 19-21장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지의 공동체와 유다 땅에 남은 그룹들간의 갈등에 대한 숨겨진 논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사기 19-21장은 신명기 사가의 2차 편집 본문으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즉, 유다 지파에 의해 베냐민 지파의 적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시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직후 일 것이다. 베냐민 지파의 정체성이 다시 부활되고 사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다윗 왕권의 교체가 요구되어지는 시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베냐민 땅 미스바에 그다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행정부가 생기던 시기였다.<sup>56</sup>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완전히 파괴하였으나, 베냐민 지역의 영토였던 예루살렘 북쪽의 성읍들은 많이 파괴하지 않았다.<sup>57</sup> 그 이유는 유다 내의 반바벨론 세력은 당시 지도 계층이었던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층에 국한되었고, 반바벨론 세력들이 모여있었던 예루살렘이 주요한 파괴의 대상이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후 더 이상 다윗 가계의 한 사람이 유다를 이끌기

54 토마스 C. 뢰머, 「신명기역사서 연구: 사회학적, 역사적, 문학적 개론」(김경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78-268. 원제는 Thomas C. Römer,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A Sociological, Historical and Literary Introduction*, (London: T&T Clark, 2007).

55 Yairah Amit, *The Book of Judges: The Art of Editing*, 363-375.

56 Philip R. Davies, "Saul, Hero and Villain," in *Remembering Biblical Figures in the Late Persian and Early Hellenistic Periods: Social Memory and Imagination*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n.d.), 138-140.

57 밀러, 헤이스, 윗글, 479.

를 원하지 않았고, 대안을 찾았으며,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되는 것을 막았다.<sup>58</sup> 이때, 베냐민 도시들은 반 시드기야 세력들에 의해서 친바벨론적인 세력들의 집결지가 되어 있었다. 립슈츠는 베냐민 땅 미스바에서 친바벨론 세력들이 정부를 세워 시드기야의 정권에 반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sup>59</sup>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잘 나타나있다. 친바벨론적이고 반시드기야적인 세력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리적으로 베냐민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과 과거의 향수를 무시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사기 19-21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 한 후 정치권력이 예루살렘 밖, 베냐민 땅에 있었으며 다윗 왕조를 떠나 있던 시기를 전제하고 있다. 그다라는 이 때 미스바에서 유다 땅의 남아 있는 자들과 도망가서 살아남은 자들을 미스바로 모았다. 이것은 사사기 20-21장의 미스바에서 모인 이스라엘의 총회와 관련 있어 보인다. 데이비스는 사사기 19-21장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사울에 대한 기억이 궁극적으로 친다윗적인 예루살렘 정치의 희생자로 유다 사람들의 기억에 각인 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본다.<sup>60</sup>

결국 이러한 베냐민 땅에 모인 사람들에게 대항해 바벨론에 남겨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다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자였으며 바벨론은 유다를 지배하는 제국이었다. 결국 베냐민 땅의 남겨진 유다 사람들, 그다라와 함께하는 무리들보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정당성을 갖는다는 숨겨진 논쟁이 사사기

58 Lipschits, 윗글, 68-69.

59 윗글, 76-77.

60 Davies, 윗글, 138-140.

19-21장 안에 들어있다.

국가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 왕정은 무너졌고, 합법적인 왕으로 생각되어진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있다. 정치, 행정, 군사 지도자가 멸망한 후, 백성들의 지도자로 새롭게 부상한 그룹은 제사장들이었다. 사사기 20장 28절에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타난 비느하스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들의 지도자로서 존재하는 제사장들을 나타낸다.

사사기 19:1, 21:25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그 때에 왕이 없었다..”는 문구에서 왕은 다윗 왕조에 속한 왕을 의미하며, 이것은 포로기 다윗 왕조의 왕이 없던 시기를 사사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사기가 배경으로 하는 시기는 왕정 이전 사사들이 통치하던 무정부 시대를 나타낸다. 그러나 사사기의 이면에는 다윗과 사울의 정치적 갈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암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이데올로기는 레위인이 부상하던 시기이다. 또한 다윗의 유다와 사울의 베냐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서, 정치의 희생자로서 사울이 부상하던 것을 막으려는 것은 다윗 왕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베냐민 땅을 중심으로 살아 남은 그다라의 그룹과의 숨겨진 논쟁을 하려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숨겨진 논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6. 결론

사사기 19-21장은 사사기의 결론으로서 사사기 편집자의 의도와 목적을 나타낸다. 사사기 19-21장은 표면적으로 다윗과 사울의 정치적 갈등이 나타나며, 그 가운데 사울을 의도적으로 깎아 내려 다윗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문서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

윗과 사울이라는 개인적 인물들의 대결로 볼 수 없으며, 다윗의 유다와 사울의 베냐민이라는 공동체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울의 정체성이 재평가되어지는 시기에 사울의 이미지를 깎아 내려 여전히 통치의 정당성이 다윗 왕조가 속한 유다에게 있어야 한다는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도를 숨겨서 표현하던 시기는 이미 사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베냐민 지파 혹은 그 땅의 정체성이 높아져 유다 왕조와 대립적 갈등을 겪던 시기로 바벨론 포로기로 연대를 상징할 수 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다라에 의해서 미스바를 중심으로 남겨진 유다 땅에서는 새로운 행정부가 수립되고 있었다. 이것을 비난하기 위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베냐민 땅을 중심으로 급부상하는 그다라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숨겨진 논쟁을 가지고 사사기 19-21장을 사사기 마지막에 위치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사사기 19-21장은 사사기의 부록이라기보다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의한 사사기의 최종 결론으로 보여진다.

## 참고문헌

- 밀러, J. 맥스웰, 헤이스, 존 H. 「고대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옮김),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105. 원제는 J. Maxwell Miller and John H. Hayes,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 소건, J. 알프레도. 「판관기」 한국신학연구소 학술부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 버틀러, 트렌트, 「사사기」 (조호진 옮김), (서울: 솔로몬, 2011), 952. 원제는 Trent C. Butler, *Judges*, WBC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8).
- 양인철, 「사사기」 연세신학백주년 기념 성경주석,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 이희학, “사사기 17-21과 친왕권적 신학,” 『구약논단』 22 (2016), 250-284.
- 임효명, “성폭력 조력자들 연구: 사사기 21장, 사무엘하 13장, 16장 20-23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3 (2022), 188-230.
- 뢰머, 토마스 C. 『신명기역사서 연구: 사회학적, 역사적, 문학적 개론』 (김경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78-268. 원제는 Thomas C. Römer,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A Sociological, Historical and Literary Introduction*, (London: T&T Clark, 2007).
- Amit, Yairah, *The Book of Judges: The Art of Editing* (Leiden ; Boston: Brill, 1999).
- . *Hidden Polemics in Biblical Narrative*, trans. Jonathan Chipman (Leiden ; Boston: Brill Academic Pub, 2000).
- Arnold, Patrick M. “Gibeah,” in *Anchor Bible Dictionary*, ed. David Noel Freedman, vol. 2 (New York: Doubleday, 1992) 551-553.
- Blenkinsopp, Joseph *David Remembered: Kingship and National Identity in Ancient Israel*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3).
- Block, Daniel I. *Nac Vol 06 Judges & Ruth*, (Nashville, Tenn: Holman Reference, 1999).
- Davies, Philip R. “Saul, Hero and Villain,” in *Remembering Biblical Figures in the Late Persian and Early Hellenistic Periods: Social Memory and Imagination*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n.d.).
- Edelman, Diana “Jabesh-Gilead,” in *Anchor Bible Dictionary*, vol. 3 (New York: Doubleday, 1992).
- Exum, J. Cheryl. 「산산이 부서진 여성들: 페미니즘 비평으로 본 성서의 여성들」 (김상래 외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1), 237. 원제는 Exum, J. Cheryl. *Fragmented Women: Feminis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 1993).
- Herrmann, Siegfried. “Ephraim,” in *Anchor Bible Dictionary*, vol. 2 (New York: Doubleday, n.d.1992), 551-553.
- Lipschits, Oded *The Fall and Rise of Jerusalem: Judah under Babylonian Rule* (Winona Lake: Eisenbrauns, 2005).
- Reed, Stephen A. “Jebus,” in *Anchor Bible Dictionary*, ed. David Noel Freedman, vol. 3 (New York: Doubleday, 1992), 652-653.
- Scott, James C.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 Seitz, Christopher R. *Theology In Conflict* (Berlin: De Gruyter, 1989).
- Sharp, Carolyn. *Prophecy and Ideology in Jeremiah: Struggles for Authority in the Deutero-*

*Jeremianic Prose*, 1st edition (London ; NY: T&T Clark, 2003).

Tollington, Janet E. "The Book of Judges: The Result of Post-Exilic Exegesis?," in *Intertextuality in Ugarit and Israel*, ed. Johannes de Moor (Leiden ; Boston: Brill, 1998), 186-196.

Trible, Phyllis *Texts of Terror Paper* (FORTRESS PRESS, 2009).

Webb, Barry G. *The book of the Judges: an integrated reading*,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46 (Sheffield: JSOT Press, 1987).

Wilcoxon, Jay. "The Political Background of Jeremiah's Temple Sermon," in *Scripture in History and Theology*, Eds. A.L.Merrill and T.W. Overholt (Pickwick, 1977).

Yee, Gale A. "Ideological Criticism: Judges 17-21 and the Dismembered Body," in *Judges and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146-170.

#### 검색어

사사기 19-21장, 숨겨진 기록, 베냐민 지파 대 유다 지파,  
바벨론 포로 공동체 대 유다 땅의 남겨진 자, 사사기의 결론

[ ABSTRACT ]

## Hidden Political Script in Judges 19-21

Mi-Hye Jung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Judges chapters 17-21 consist of two narratives. Judges 17-18 deals with religious disorder through the story of Micah's family in Mount Ephraim and the tribe of Dan. Judges 19-21 contains the story of a civil war between the tribe of Benjamin and all of Israel due to a sexual mob violence suffered by a Levite's concubine. Drawing on James Scott's theory of the "hidden transcrip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olitical groups in conflict with the period in which the texts were written. Judges 19-21 intentionally uses symbolic place names and settings for Saul to not only undermine Saul's tribe of Benjamin, but also to give the tribe of Judah justification to attack the tribe of Benjamin. However, Judg 19-21 cannot be viewed as a confrontation between David and Saul as individuals, but rather as a community. The conflict between the tribes of Benjamin and of Judah intensified during the period of the rise of interest in the tribe of Benjamin, or land, and the captivity of the dynasty of Judah. Therefore, the date of Judg 19-21 is shortly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by Babylon. After the fall of Jerusalem, Babylon appointed Gedaliah as the governor of Judah, and he made the land of Benjamin his administrative center. Judges 19-21 should be seen as a "hidden transcript" that emphasizes the legitimacy of the Babylonian captive community over the surviving Jews in the land of Benjamin.

www.kci.go.kr

key words

Judges chapters 19-21, hidden script, tribe of Benjamin vs. tribe of Judah,  
Babylonian captive community vs. people left in the land of Judah,  
conclusion of the Book of Judges

투고일: 2024년 07월 16일

심사일: 2024년 08월 09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8월 25일

[www.kci.go.kr](http://www.kci.go.kr)